



대학주보

중간고사 '비대면' 시행 원칙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중간고사 시행 방식과 일정이 변경됐다.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대면 시험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학사지원팀 전준하 주임은 “중간고사 시행방식이 비대면 원칙으로 변경됐다”며 “10월 5일 이후 대면 수업이 예정돼 있었거나 반드시 대면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에 한해 대면 시험이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대면 시험이 필수로 생각되는 과목들도 학장이나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면 시험의 경우, 모든 출입자는 건물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선별 검사지와 강의실 출입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발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귀가 조치된다. 대면 시험이지만 본인이 코로나19 유증상, 자가 격리 등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하다면 해당 교강사에게 비대면 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가방식을 바꿀 수 있다.

시험 일정도 일부 변경된다. 시험 기간이 2주로 연장됐고 캠퍼스별로 대면시험과 비대면시험을 분리 시행한다. 전 주임은 “기존 시험 기간이었던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1주 차 시험 기간, 10월 27일에서 11월 2일까지는 2주 차 시험 기간으로 편성됐다”며 “서울캠퍼스는 1주 차에 대면, 2주 차에 비대면 시험을 치르고, 국제캠퍼스는 그 반대”라고 설명했다. 양 캠퍼스가 동시에 비대면 시험을 치를 경우 서버다운 등 접속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시험을 치르는 교강사는 ‘경희대학교 e-campus’, ‘ZOOM’, ‘Cisco Webex’를 이용할 수 있다. 교강사 재량에 따라 과제물 대체나 중간고사 미 실시도 허용된다.



제2기숙사서
난동사건 발생

지난 22일 한 남학생이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 여학생 거주 층에 무단으로 들어가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제2기숙사는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학무부총장실과 공유, 생활관 징계위원회는 해당 남학생에 징계퇴사 및 기숙사 입사 영구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특별장학금 1차 지급, 1학기 재학생 대상

이지민 기자 delicato@khu.ac.kr

총액 32.2억원 최종 결정
현재까지 1,650명 미수령
초과학기 납부자는 제외

코로나19 특별장학금(특별장학금)이 지난달 28~29일 양일간 1차로 지급됐다. 전산상의 이유 등으로 1차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학생 18,7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장학금은 32.2억원 규모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번 특별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반환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학생과 학교 측은 논의 끝에 특별장학금 합의를 한 바 있다. 1차 등록금 반환 회의(반환 회의)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2차, 3차 반환 회의에서는 특별장학금의 지급 방식과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이 결정됐다. 등록금 반환 비율을 두고 학생과 학교 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지만, 9월 1일을 기점으로 재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졸업생이 특별장학금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8월 28일 ‘등록금 비율 5% (32.5억)’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특별장학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업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올해 8월에 졸업한 학생 역시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10,520여 명, 국제캠퍼스(국제캠) 8,200여 명으로 총 18,720여 명의 학생들이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됐다.

지급액은 앞서 합의한 바와 같이 ‘2020학년도 1학기 수업료 실납부금’의 5%로 책정됐다. 여기서 실납부금은 수업료에서 교내의 장학금 일체가 제외된 금액이다. 예산안은 서울캠 17.7억원, 국제캠 14.5억원으로 총 32.2억원이다. 최종 합

의 금액인 32.5억원에서 0.3억원이 줄었는데, 이는 지급 대상자 중 일부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장학금 총액 32.2억원 중 12.9억원은 2020학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관리운영비와 학생지원비, 일부 교내장학금 등을 모은 금액이다. 또한, 나머지 부족분은 2학기에 시행할 수익사업과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특별장학금 세부 금액은 ‘Info21시스템 -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금총액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장학금 1차 지급 이후 현재까지 서울캠 1,000여 명, 국제캠 650여 명이 특별장학금을 미수령한 상태다. Info21시스템에 등록된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니거나, 계좌가 등록되지 않는 등의 오류로 특별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의 계좌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과학기 납부자(졸업유예자 포함)가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학기 초과학기 납부자였던 조성웅(국어국문학 2013) 씨는 “지난 학기 등록금의 1/6의 금액을 납부하고, 6학점을 수강했다”며 “초과학기 납부자 또한 명백히 등록대상자에 포함되고 생각한다”며 “6학점 이상 강의를 수강하는 초과학기 납부 학생의 경우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학교 측은 “특별장학금은 장학규정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정규학기 재학생이 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대학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특별장학금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가 2학기에도 종식되지 않은 만큼,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편성을 통해 대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